

서산대사의 승군활동과 조선후기 추념사업¹⁾

황인규

[국문 초록]

본고는 조선중기 암울했던 불교를 중흥한 서산대사 청허당 휴정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나아가 국가적 추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는 것이 그 연구목적이다. 서산대사는 그 이후 오늘날 까지 한국불교의 승려는 모두 그의 문도라고 할 만큼 그의 비중은 매우 크다. 그는 송유역불시기 불교가 탄압을 받아 중단조차 없어져 승려는 산중으로 가야만 했고 심지어는 역모를 하였다고 모함을 받아 구금이 되었다가 풀려나기도 하였다.

마침 일본이 일으킨 임진란으로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반도의 북쪽 의주로 피난을 가야하는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나이 73세의 노구의 몸을 이끌고 전국의 승도에게 격문을 돌려 승병을 일으킨 국국의 승장이었다. 불살생계를 지켜야 하는 승려였음에도, 그리고 불교가 국가의 탄압을 받았음에도 국가의 위기를 구하고자 하였던 것은 애국적 숭고한 행위였다. 그럼에도 그에 대한 추념은 영조와 정조대 그가 머물렀던 묘향산과 그의 대표적인 제자 사명의 출생지인 밀양, 그리고 반도남쪽의 그의 뜻을 받들어 조선후기 불교의 중심지가 되었던 대흥사 등 몇 건 외에는 그에 대한 추념사업은 찾기 힘들고 그러한 사실조차 잊혀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는 이러한 그의 국가를 위한 애국정신을 되짚어보고 그를 추념하면서 오늘날 너와

1) 본고는 지난 2009년 5월 22일(금) 대흥사에서 개최된 공청회 <‘서산대제’는 국가적 제의로 봉행되어야 한다. 서산대제의 국가제향을 위하여>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정리한 것임을 밝혀둔다.

나, 우리의 공동체사회에서 그의 지고한 정신과 행위를 재음미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도선(道詵), 무학(無學), 서산(西山), 표충사(表忠祠), 수충사(酬忠祠), 국가비보사상(國家裨補思想), 승군(僧軍), 수원승도(隨院僧徒), 사성(四聖)

1. 들어가는 말

서산대사는 그의 제자 사명대사와 더불어 임진왜란시 활동한 승장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조선불교를 중흥시킨 고승으로서의 위상도 매우 크다. 서산대사는 고대의 원효성사와 고려의 보조국사 지눌, 근대의 경허선사와 더불어 한국불교계를 대표하는 고승이다. 이들은 모두 해외에서 구법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도를 깨치고 불교계를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문화를 크게 진작시켰다.

서산대사는 ‘무종단 산중불교’라는 조선불교를 중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²⁾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을 당하였을 때 국가비보승군환

-
- 2) 그동안 서산에 대한 중요 연구실적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일제강점기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車生, 『西山大師と四溟堂』, 『文教の朝鮮』, 조선교육회, 1927. 1.; 金泰洽, 『서산대사의 신앙과 그 학덕』, 『불교』58, 불교사, 1929; 『조선』182, 조선총독부, 1932.12.; 『한국근현대불교자료전집』, 민족사, 1996. 해방이후 1960년대까지의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仁旺居士, 『서산대사와 이율곡』, 『백민』4-5(16), 백민문화사, 1948. 10.; 우정상, 『서산대사의 출가동기』, 『녹원』4·5, 녹원사, 1958. 4·8.; 『조선전기불교사상연구』,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5.; 우정상, 『휴정-선과 교의 통일점-』, 『한국의 인간상』3, 신구문화사, 1965. 1970년대 이후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김경탁, 『서산대사의 생애와 사상』, 『아세아연구』13-3,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0.; 송친은, 『휴정의 사상』, 『송산박길진박사화갑기념논총 한국불교사상사』, 원광대학교, 1974.; 김동화, 『유정의 사상』, 『송산박길진박사화갑기념 한국불교사상사』, 원광대학교 출판국, 1974.; 권기중, 『서산의 화사상』, 『불교학보』15,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1978.; 우정상, 『선가 귀감의 간행유포고』, 『불교학보』14,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1977.; 『조선전기

동은 국가의 존망의 위기를 모면하게 하였고 이를 계기로 승려의 존재를 다시금 부각시키게 하였다. 그러나 선조대나 영·정조대 외에는 국가비보승군활동의 공로에 대한 추념사업을 전개한 적이 거의 없다.

본고는 서산의 임진왜란시 승군활동은 한국불교의 오랜 전통인 국가비보사상의 전통에서 나온 것임을 강조하고 조선후기 서산에 대한 추념사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나아가 전근대시대 중요교승들에 대한 국가추념을 살펴봄으로써 서산에 대한 위상을 재정립해보고자 한다. 이 소고가 서산대제의 국가제향을 위한 정당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선학제현의 아낌없는 가르침과 절정을 바라마지 않는다.³⁾

불교사상연구,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5; 우정상, 『서산대사전 약고』, 『조선전기불교사상연구』,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5; 김철, 『서산대사: 朝鮮佛敎 빛낸 사상사의 거봉』, 『한국불교인물사상사』, 불교신문사 편, 민족사, 1990; 김용태, 『조선중기 불교계의 변화와 ‘서산계’의 대두』, 『한국사론』 74, 서울대 국사학과, 2001.

그리고 범통이나 문도에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김영태, 『휴정의 선사상과 그 범맥』, 『한국선사상연구』,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84; 김영태, 『조선 선가의 범통고-서산 가통의 구명-』, 『불교학보』 22,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85; 김영태, 『제월당집에 보인 휴정의 범통』, 『진산한기두박사화갑기념 한국종교사상의 재조명』 장, 원광대학교 출판국, 1993; 김항배, 『서산문도의 사상』, 『승산 박길진박사 화갑기념 한국불교사상사』, 원광대학교 출판국, 1975; 이영자, 『조선 중·후기의 선풍-서산 오문을 중심으로-』, 『한국선사상연구』,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84.

박사학위 논문과 저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형중, 『휴정의 선사연구』, 연변대 박사학위논문, 2000; 신범인, 『서산대사의 선가구감연구』, 김영사, 1989; 손병욱, 『서산 조선을 뒤엎으려 하다』, 정보와사람, 2006 손병욱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지리산 화개동 바위에 얹힌 비결과 묘향산 단군신화와 연결을 지어 청허휴정이 조선왕조를 전복시키려고 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불교나 불교사의 연구성과로 볼 때 전혀 수용할 수 없다. 최근에 서산대사와 신자유주의라는 관점에서 서산대사가 국가적 제향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저서가 출간되었다. (신지건, 『세계화 시대의 한국 서산사상과 신자유주의』, 화은각, 2008.6.)

- 3) 서산대제가 국가제향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서산대사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서산대사의 불교계에서의 위상은 물론이고 국가적 사회적 위상을 재인식하도록 하는 노력이 최우선적으로 요청된다. 서산대사 뿐만 아니라 불교 내지 불교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후 중단은 물론이거니와

2. 국가비보사상과 승군활동

1) 국가비보사상의 계승

서산대사가 임진왜란 때 전국의 승군을 동원하여 국가를 위기에서 구한 것은 다름이 아닌 한국불교에서 오래전부터 지녀온 국가비보사상전통의 발현이다. 국가비보사상이란 비보사찰설 내지 비보사탑설이라고 불려온 것이며, 국가를 위하여 비보하는 사상이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태조 왕건이 남긴 訓要十條에서 고려왕조는 여러 부처의 힘을 입어 창업되었고 도선의 설에 따라 山水의 順逆을 推占하여 사찰을 개창하였다.⁴⁾ 비보사찰은 개경이나 그 주변에 창건된 역대 왕실의 眞殿寺院과⁵⁾, 지방의 창건 또는 지정된 비보사찰을 포함하여 그 수가 3,000소 내외에 달하였다.⁶⁾

비보사찰설은 대개 풍수지리사상이라는 측면에서 설명되어 왔지만 그 외에도 선종과 밀교, 천태종계에서도 흥행하였다.⁷⁾ 특히 후대에 각 종파 가운데 사세가 가장 두드러졌던 선종과 천태종계에 계승되었다. 선종의 경우 도선의 문도라고 추정되는 如哲에게 전해졌는데⁸⁾ 성종 1

국가적·사회적 운동차원에서 사산대사에 대한 일련의 사업이 구상되고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서산대사에 대한 사상적 천착은 비교적 많이 이루어졌지만 서산대사의 생애와 활동, 관련 사찰·유물·유적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본격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아쉬기 그지 없다, 본고도 그러한 최우선적인 과제인 그 주제로 연구되지 못했다. 차후의 과제로 미루기로 한다.

4) 『고려사』 권2, 태조세가, 태조 26년, 4월조,

5) 『고려사』, 병지, 宿衛軍條 ; 허홍식, 『고려불교사연구』, 일조각, 1986, p.75

6) 『성종실록』 권174, 성종 16년, 1월, 무자조.; 이병희, 『조선초기 사사전의 정리와 운영』, 『전남사학』 7, 1992, pp.362-365.

7) 서운길, 『도선국사의 생애와 사상』, 『한국불교학』 1, 1975. ; 김지건 외 『도선연구』, 민족사, 1999, p.35; 허홍식, 『천태종의 형성과정과 소속사원』, 『고려불교사연구』, 일조각, 1986, p.260.

년 무렵 여철은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개경 일대와 僧加窟과 神穴寺 등 남경에서도 활동하였다.⁹⁾

무신집권기 초기인 1234년(고종 21) 9산문도가 大安寺 叢林에서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고자 여철을 부각시키고 도선의 축문을 지어 추념하였다.¹⁰⁾ 그리고 眞覺國師 慧諱(1178~1234), 圓悟國師 天英(1215~1286), 圓鑑國師 冲止 등 수선사 고승들과¹¹⁾ 고려 말 나옹혜근의 문도인 宏演과 無學自超, 무학의 제자 惠澄과 涵虛己和에게도 도선의 종풍이 계승된 흔적을 찾을 수 있다.¹²⁾ 후대에 ‘고려 태조 王建이 道詵을 스승으로 삼아서 개국한 것 마냥 조선 太祖 李成桂도 無學自超를 얻어 나라를 창업하였다.’¹³⁾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던 듯하다. 이렇듯 국가비보사찰의 운용은 불교시책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다음의 인용한 글에서 보듯이 지방통치체제의 일환이기도 하였다.¹⁴⁾

8) 이규보, 『大安寺同前勝』, 『동국이상국집』 권25, 勝文, “我太祖大王 因哲師秘要 崇信宗門 乃闢五百禪宇 闡揚心法 然後北兵自却 無復寇邊…….”; 이규보, 『龍潭寺叢林會勝』, 『동국이상국집』 권25, 방문, “我太祖肇基王業 篤崇禪法 於是 創五百禪宇於中外 以處衲于 間歲設談禪大會京師 所以鎮北兵也”.

9) 『고려사』 권93, 열전 6, 최승로; 『고려사절요』 권2, 성종 1년, 6월, 최승로 상소문. 李旆, 『三角山重修僧伽庵記』, 『동문선』 권64, 記; 이난영 편, 『僧伽寺石像』, 『한국금석문추보』, 아세아문화사; 李弘植, 『僧伽寺雜考』, 『향토서울』 7,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59, p.17 <石像 光背銘>; 南東信, 북한산 僧伽大師像과 僧伽信仰, 『서울학연구』 14, 서울시립대 부설 서울학연구소, 2000.

10) 이규보, 『廣濟寺安宅法席疎』, 『東國李相國全集』 권41, 釋道疏.

11) 冲止, 『圓鑑國師歌頌』, pp.85-87; 『한국불교전서』 7, p.381. “… 龍山之頂 有坐禪巖行道石 蓋先覺眞覺 兩國老宴坐修道之遺跡也 近者社內名德盧公 卜地於坐禪巖下 化榛莽爲蘭若而居之其地之絕奇勝 固不可形容也 遂乃請名于晦堂和尚 和尚以 禪石名之 ….”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0, 求禮縣, 山川條, “鰲山 在縣南十五里 山頂有一岩 岩有空隙深不可測俗傳 僧道詵嘗住此山書天下地理;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9, 남원도호부, 산천조.

12) 이에 대한 자세한 사실은 다음의 논고를 참조하기 바란다. (황인규, 『고려전기 사굴산문계 고승과 선종계』, 『한국선학』 17, 2007.)

13) 『영조실록』 권35, 영조 9년, 8월, 6일 갑술조; 『영조실록』 권35, 영조 9년, 8월, 26일조; 中觀 海眼(1567~?), 『倉都體府揔戎使書』, 『中觀大師遺稿』 文; 『한국불교전서』 8책, p.218 上-中.

백관이 乾德殿에 나아가 成平節을 賀하나 宰樞와 給舍中丞이상의 侍臣을 宣政殿에서 향연하였다. 成平節은 왕의 생일이다. 매양 이 절일을 맞이하면 外帝釋院에서 祈詳迎福道場을 설하고 문무백료는 興國寺에서, 동서 양경 4도호 8목은 소재불사에서 행함을 恒式으로 삼았다.¹⁵⁾

국가왕실의 사원과 양경인 開京·西京과 4都護 8牧인 대읍, 그리고 郡縣에서도 해마다 輪經會 등 불사가 실시되었다.¹⁶⁾ 특히 鎮兵法席의 경우 전국의 151읍의 비보사찰에서 실시되었다.¹⁷⁾ 이렇듯 국가와 지방이 불교행사를 비보사찰에서 주관하였으며, 이는 조선 초까지 실시되었다.

왕이 즉위한 이래 매월 朔望에는 반드시 궁중에 僧을 초청하여 經을 강하고 매 四時에는 13소에 祈恩道場과 法席이나 別祈恩이라하여 神佛에 諂事하니 대신과 대간이 매양 논의하였으나 듣지 않았다.¹⁸⁾

“…빌건대, 中外의 寺社에서 베풀어 행하는 道場·法席·國卜·祈恩·年終還願 등의 일을 일체 모두 정지하여 혁파하소서. 또 神에게 제사하는 것은 정성과 공경이 주가 되는데, 淫祀에서 煩黷하는 것은 제사하지 않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원하건대, 이제부터 祀典에 실려 있는 名山·大川은 한결같이 『洪武禮制』

14) 慧湛, 『常住寶記』, 『진각국사어록』, 『한국불교전서』 6. ‘凡寺院者無非爲國朝及州縣裨補所置也’; 양은용, 『도선국사 비보사탑설 연구』, 『선각국사도선의 신연구』, 영암군, 1988.; 황인규, 『고려 裨補寺社의 設定과 寺莊運營』, 『동국역사교육』 6, 1998; 황인규, 『고려후기·조선초 불교사연구』, 해안, 2003.

15) 『고려사』 권7, 문종세가, 문종 즉위년, 11월, 병오조.

16) 『고려사』 권7, 문종세가, 문종 1년, 1월, 정유조.

17) 『고려사절요』 권32, 신우 9년, 9월조. “…大設鎮兵法席于中外佛寺 共一百五十一所…”

18) 『고려사』 권45, 공양왕세가, 공양왕 2년, 9월, 임진조.

에 의하여 정성을 다해 제사지내고, 國巫堂과 紺嶽·德積 등지에 巫女와 司鑰를 보내어 때 아닌 때에 제사하는 것 같은 것은 일절 모두 금단하소서.” 다만 佛事만 혁파하게 하였다.¹⁹⁾

위의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 초에 이르러 고려시대에 국가적으로 설행되었던 비보사찰에 대한 道場·法席·國卜·祈恩·年終還願²⁰⁾ 등의 불사가 혁파되었고, 특히 1406년(태종 6) 역사상 초유의 불교교단에 대한 탄압을 받아 전국의 많은 사찰과 승도, 사원진이 혁파 또는 대폭 축소되었다. 그 가운데 고려 건국 이래 비보사찰은 地德의 衰處나 逆處에 건립되어 운용되었으나 조선초에 이르러 山水勝處에 세워지게 되었다.²¹⁾

게다가 연산군 이후 ‘무종단 산중불교’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국가 비보사찰은 더 이상 운용되지 못하여 사찰은 국가와는 무관하게 되었다. 이에 조선의 불교계는 사찰이 국가나 국토에 순기능을 하였다는 관념을 창출할 필요가 있었다. 조선후기에 작성된 사찰 기문류에는 일행의 제자인 도선이 전 국토에 비보소를 지정하고 사찰·탑·불상·부도를 건립하였다고 주창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당시 전국의 비보사찰의 수는 1500소²²⁾, 3000소²³⁾·3500소²⁴⁾·3800²⁵⁾소에 이르렀다는

19) 『정종실록』 권6, 정종 2년(1400), 12월, 22일 임자조.

20) 매양 歲末에는 內侍別監을 보내어 佛宇와 山川에 복을 빌었으니, 이를 年終還願이라 불렀다고 한다. <『세종실록』 권14, 세종 3년(1421), 12월, 13일 임인조.>

21) 황인규, 위의 논문 참조.

22) 白谷處能(1617~1680), 『諫廢釋教疏』, 『大覺登階集』 권2; 『한국불교전서』 8책, 341쪽.

23) 李景奭, 『道岬寺道詵守眉兩大師碑』, 『조선금석총람』 하, 1919. : 『성종실록』 권174, 성종 16년, 1월, 무자조; 海鵬展翎(?~1826), 『敬贊道詵國師』, 『海鵬集』 (『한국불교전서』 T2책, p.244; 丁範祖(1723~1801), 『湖南潭陽法雲山玉泉寺事蹟』, 『海左先生文集』 권14, 詩.

24) 朝鮮總督府 內務部地方局纂輯, 『增補校正 朝鮮寺刹史料』 上, 中央文化出版社,

25) 『지리산화엄사사적』, 『華嚴寺誌』, 아세아문화사, 1997, pp.17~23.

관념이 생겼던 것 같다.²⁶⁾ 조선후기 산증불교시대의 주역이라고 할 서산도 양창해와 교류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일행이 도선에게 부촉하였다고 한 은산의 비문은 대략 이렇습니다. “부처란 가장 훌륭한 의사이다. 그가 몸을 다스리면 재앙과 병이 사라지고 마음을 다스리면 번뇌가 없어지며 산천과 토지를 다스리면 흉하고 해로운 일이 길하고 이로운 쪽으로 변한다. 비보를 시설하는 일은 쑥과 같다.…”

그대가 이제 불법의 쑥으로 그 산천들을 고쳐라. 모자라는 것은 보충해 주고 과한 것은 누르며 달아나는 것은 붙들고 등지는 것은 부르며 도적 질하려는 것은 막고 다투는 것은 말리며 착한 것은 세워 주고 길한 것은 북돋아준다. 병든 지세를 관찰하여 전국의 3,800여 곳에 부도를 세우고 탑을 만들거나 절을 세운다면 그대 나라에 산천의 병과 허물은 모두 숨을 것이다. 이것이 병을 고치기 위해 비보를 시설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 뒤에는 그대의 삼한은 모두 한 집이 될 것이요, 도적도 교화되어 새 백성이 될 것이며, 바람과 비도 때를 맞추고 인민들은 모두 화목하고 순박해질 것이다.²⁷⁾

이러한 서산의 비보사찰설은 도선과 무학이 잘 계승했다고 기술한 『釋王寺記』에서도 찾아진다.

옛날 왕태조는 道詵을 얻어 스승을 삼고 절을 세워 먼저 태조가 되어 宗廟를 누리고 자손을 보존한 지 천년이다. 이제 우리 太祖는 無學을 얻어 스승을 삼고 절을 세워 나중에 태조가 되어 종묘를 누리고 자손을

26) 황인규, 「선각국사 도선과 비보사찰」, 『선각국사 도선』, 영암군 월출산 도갑사 도선국사연구소 207; 황인규, 「선각국사 도선의 종풍 계승 및 전개」, 『한국선학』 20, 2008.

27) 淸虛休靜(1520~1604), 『答楊滄海書』, 『淸虛堂集』 권7(『한국불교전서』 7책, pp.731~732)

보전한 지 200년이다....²⁸⁾

서산의 비보사찰설은 그의 문도들에게 계승되었고²⁹⁾ 부휴선수의 문도들이나³⁰⁾ 조선후기 儒者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³¹⁾ 바로 이러한 서산의 비보사찰설은 국난의 위기에 주저 없이 승군으로 활동하게 한 사상적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다.

2) 국가승군활동의 전개

앞서 살펴본 대로 국가비보사상에 의해 불교승려는 국가제도에 편입되어 운용되었다. 바로 다음과 같은 기록이 그것이다.

또 승도를 뽑아서 降魔軍으로 삼았다. 국초에 중앙과 지방의 사원에는 모두 隨院僧徒가 있어 노역을 담당하였는데 마치 郡縣의 居民과 같았고 恒産을 가진 자가 많아서 천백에 이르렀다. 매번 국가에서 군사를 일으킬 때 마다 중앙과 지방의 사원의 隨院僧徒를 징발하여 諸軍에 나누어 소속시켰다.³²⁾

28) 淸虛休靜(1520~1604), 『雪峰山釋王寺記』, 『淸虛堂集』 권7(『한국불교전서』 7책)

29) 中觀海眼(1567~?), 『奮都體府揔戎使書』, 『中觀大師遺稿』 文: 『한국불교전서』 8, p.218.

30) 白谷處能(1617~1680), 『諫廢釋教疏』, 『大覺登階集』 권2; 『한국불교전서』 8책, p.341.

31) 宋能相(1710~1758), 『寄煥經 煥箕 別紙』, 『雲坪先生文集』 권7, 書: “道說無學二高僧只從雄拔聚氣處論風水 而不會看得到此 ….”; 蔡濟恭(1720~1799), 『文若坐睡 吾亦坐睡 戲爲坐睡歌』, 『樊巖先生集』 권17, 臨湍錄; 宋能相(1710~1758), 『寄煥經 煥箕 別紙』, 『雲坪先生文集』 권7, 書: 宋煥箕(1728~1807), 『從叔父雲坪先生行狀』, 『性潭先生集』 권29, 行狀; 黃胤錫(1729~1791), 『二十八日己酉』, 『頤齋亂藁』 권12.; 李德懋(1741~1793), 『[耳目口心書]』, 『靑莊館全書』 권50, 完山李德懋愬官著男光葵奉臬編輯德水李畹秀蕙隣校訂, 耳目口心書[三]. 丁若鏞(1762~1836), 『風水論五』, 『與猶堂全書』, 第一集 詩文集 第十一卷, 文集 論; 정약용, 『풍수론 5』, 『다산시문집』 권11, 논.

국가비보사찰에는 지방통치체제의 일환인 莊을 설정하고 수원승도를 배속하였다. 국초 이래 隨院僧徒가 모두 소속되어 있었던 중앙과 지방의 사원은 국가에서 지정한 비보사찰을 의미한다. 隨院僧徒는 郡縣의 민과 같이 항상 노역을 담당하였고 유사시 군사(降魔軍)에 징발되었다. 인종 초에 고려에 온 송나라 사신 서궁도 ‘在家和尚’이라고 불렀다.³³⁾ 뿐만 아니라 사찰의 신앙공동체나 마을공동체를 주도했던 香徒도 이러한 부류다.

수원승도를 이끄는 僧將도 있었는데 신라 말 태조의 법사 能兢과 몽고의 침입 때 참가했던 승려 金允侯, 고려 말 이성계의 군사심참모인 神照, 내원당 고승 玄麟 등이 바로 그들이다.

能兢은 태조 왕건의 行營福田 또는 行軍福田으로 불리었던 군사참모였다.³⁴⁾ 또한 천태종의 중심사상 가운데 하나인 會三歸一의 정신을 가장 잘 계승 실천하였고 고려 말 신조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승장 金允侯는 용인 白峴院에서 활동하였는데 몽고군이 침입하자 하층민인 처인부곡민과 1232년(고종 19) 몽고군의 수장 살레타이를 사살하여 몽고군을 철수하게 하였다. 그후 충주로 가서 충주산성별호방호별감으로 임명되어 충주의 승려 牛本과 奴軍의 司令 池光守와 더불어 몽고군을 방어하였다.³⁵⁾ 이러한 공으로 김윤후는 監門衛上將軍, 東北面兵馬

32) 『고려사』권81, 병지1, 5군, 숙종 9년, 12월조. “...國初 内外寺院 皆有隨院僧徒 常執勞役 如郡縣之居民 有產者 多之千百 每國家興師 亦發内外諸隨院僧徒 分屬諸軍.”

33) 『高麗圖經』卷18, 釋氏.

34) 眞淨國師 天頊, 『答芸臺亞監閔吳書』, 『湖山錄』; 허홍식, 『진정국사와 호산록』, 민족사, 1995. 310쪽. “何者 昔聖祖初創之際 行營福田能兢 親傳道洗 聖訣 以三乘會一乘 三觀在一心 甚深妙法 合我會之三之國 上奏天聰故”. 閔漬, 『國清寺金堂主佛釋迦如來舍利靈異記』, 『동문선』권68, 기.

35) 『고려사』권103, 김윤후열전. ; 『고려사』권129, 최충헌열전.

使, 樞密院副使, 守司空右僕射에 올랐으며,³⁶⁾ 우본도 포상을 받고 충주 大院寺 주지가 되었다.³⁷⁾ 이것이 바로 역사상 민중운동사에 빛나는 승장 김윤후와 우본이 이끄는 忠州 奴軍雜類의 항쟁이다.

공민왕의 측근승려였던 神照(생몰년 미상)³⁸⁾도 行軍法師 能兢의 會三歸一の 통합 내지 창업정신을 계승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우왕대 해주전장과³⁹⁾ 위화도 회군시에도 이성계의 군사참모로 활동하였다.

洪武 무진년(1388, 창왕14)에 兵禍가 일어나서 국가의 안위가 급박할 때 神照는 完山 李侍中의 막하에 있으면서 將相들과 함께 국가의 대책을 정하여, 의병을 일으키고 회군하여 종묘와 사직을 편안하게 하여 오늘의 국가 중흥의 왕업을 열게 하였다.⁴⁰⁾

신조는 조선왕조 건국시 승려로서는 유일하게 ‘奉國君’이라는 책봉을 받게 되는데⁴¹⁾ 이는 바로 수원승도적 전통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⁴²⁾ 그리고 국사와 왕사 다음의 서열에 있었다고 할 內願堂 승려

36) 『고려사』 권24, 고종 46년, 1월, 무오일. ; 『고려사』 권25, 원종 3년, 12월, 정축일. ; 『고려사』 권25, 원종 4년, 12월, 병인일.

37) 『고려사절요』 권16, 고종 19년(1232), 1월. 『청장관전서』 권57, 盜集記 4 新羅·高句麗·百濟·高麗의 기이한 姓 “僧氏 『씨족서』에 “僧牛本은 高宗 때에 都領令史였다.” 하였다. 그러나 우본은 반란군의 괴수로 몰려 죽음을 당하였다.(『고려사』 권103, 이자성열전.)

38) 神照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은 사료에서 찾을 수 있다. 『고려사』 권114, 池湧奇列傳. ; 『고려사』 권115, 李穡列傳. ; 『고려사』 권131, 洪倫列傳. ; 『고려사』 권45, 공양왕세가, 공양왕 2년, 11월, 임인조. ; 『태조실록』 권1, 충서. ; 權近, 『水原萬義寺祝上華嚴法會目記』, 『陽村集』 권12, 記. ; 權近, 『李穡行狀』, 『陽村集』 권40, 行狀. ; 元天錫, 『奇奉國君神照大禪師』, 『耘谷行錄』 권5.

39) 『고려사절요』 권30, 우왕 3년 9월조. ; 『太祖實錄』 권1 總書.

40) 權近, 『水原萬義寺祝上華嚴法會目記』, 『陽村集』 권12 記. ; 『東文選』 권78 記. ; 權近, 『李穡行狀』, 『陽村集』 권40 行狀.

41) 神照는 승려로서는 유일하게 鄭津 原從功臣 錄券 功臣名單에 보이고 있다(박천식, 『조선 건국의 정치세력연구』 하, 『전북사학』 9, 1985, p.75).

42) 『고려사』 권81, 병지 1, 병제.

玄麟도 군사핵심참모였다.

…辛昌이 왕으로 되자 다시 최영을 잡아다가 순군에 가두고 王安德, 鄭地 柳曼殊, 鄭夢周, 成石璘, 趙浚에게 명령해 최영 및 內願堂 승려 玄麟 등을 신문케 하였다. 玄麟은 시초에 최영과 공묘해 僧兵을 징발하였고 회군하자 최영과 함께 항거해 싸운 자이다.…⁴³⁾

또한 이성계가 정도전 보다 먼저 무학자초로부터 왕조창업을 중용 받았고 이러한 사실은 서산이 『석왕사기』로 남겼다.⁴⁴⁾ 서산은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선조의 통첩을 받아들여 국가비보 승군활동에 참여했다. 이는 바로 앞서 언급한 향도 내지 수원승도적 전통을 계승한 불교계의 국가비보사상의 발현이었다.⁴⁵⁾

선조가 서산에게 승군을 부탁하자 서산은 당시 73세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승군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사찰에서 기도하고 그 외 나머지는 승군으로 편성케하였다.⁴⁶⁾

훈련도감이 아뢰었다. “각도의 僧軍에 장정이 많이 있으나 흩어져 통솔하는 이가 없으면 군병을 이루기 어려우므로 지난번 總攝僧 休靜에게

43) 『고려사』~권113, 최영열전.

44) 황인규, 『무학대사연구-여말선초 불교계의 혁신과 대응』, 해안, 1999.

45) 한국사에 있어서 승군의 활동은 국가비보적 사상에서 연원하며, 그 구체적으로 투영된 것이 바로 국가제도하에서 정규군으로서 승군이 조직된 것이 아닌, 윤관이 별무반 편성시 향마군에 동원되었던 수원승도류라고 할 수 있다.(『고려사』~권81 병지 1, 병제.) 그리고 조선중기 서산과 부휴의 문도들의 승군활동도 국가비보적 산물이며 그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이르러 불교가 사회전반에 흥성했던 고종세와는 달리 성리학적 예제가 수용되면서 향도가 두레적 성격으로 탈바꿈하였다.(성현, 『慵齋叢話』; 『국조보감』~권6, 세종조 2, 11년; 『연려실기술』~별집, 권2, 祀典典故, 士·庶人의 상례와 제례.) 조선중기의 승군은 이전의 수원승도와는 다른 승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 독자의 오해가 없기 바라마지 않는다.

46) 徐有隣(1738~1802), 『西山大師表忠祠紀績碑銘』, 『조선불교통사』~장.

移文하여 나이 젊은 승군 수백 명을 뽑아 성안으로 보내게 하여 火炮를 가르치려고 하였습니니다.

지금 황해도·평안도·강원도의 승군이 각각 수십 명씩 도착하면서 스스로 수개월의 양식을 가지고와 조총과 刀槍 등의 기예를 배우고 싶어합니다. 이들을 만일 점차 교련하여 모두 관군으로 삼는다면 정액 이외에 별도로 一軍을 만들 수 있으니 이익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이 승군으로 우선 1哨를 삼고 部將 金瑩으로 哨官을 삼아 영솔하여 동일한 양식으로 훈련하게 하고 論賞 등의 일도 다른 포수의 예에 의거하여 권장하고 격려하는 마음이 들게 하소서.” 임금의 이를 따랐다.⁴⁷⁾

훈련도감에서 각도의 승군에 장정이 많은데 이를 승군의 장이 통솔하여야 하는데 그것을 서산에게 위임하고 있다. 그 장정은 ‘스스로 수개월의 양식을 가지고와 조총과 刀槍 등의 기예를 배우고 싶어하는’ 고려시대 수원승도나 재가화상과 같은 부류를 모집하였다.

僧統을 설치하여 僧軍을 모집하였다. 行朝에서 妙香山의 옛 僧官 休靜을 불러 그로 하여금 승려를 모집하여 군사를 만들도록 하였다. 휴정이 여러 절에서 불러 모아 수천여 명을 얻었는데 제자 義嚴을 總攝으로 삼아 그들을 거느리게 하고 元帥에게 예속시켜 聲援하게 하였다.

그리고 또 檄文을 보내어 제자인 關東의 惟政과 湖南의 處英을 장수로 삼아 각기 본도에서 군사를 일으키게 하여 수천 명을 얻었다. 유정은 담력과 지혜가 있어 여러 번 倭陣에 사자로 갔는데 왜인들이 信服하였다. 僧軍은 제대로 接戰은 하지 못했으나 경비를 잘하고 역사를 부지런히 하며 먼저 무너져 흩어지지 않았으므로 여러 도에서 그들을 의지하였다.⁴⁸⁾

47) 『선조실록』 권49, 선조 27년(1594), 3월, 28일 병오조.

48) 『선조수정실록』 권26, 선조 25년(1592), 7월, 1일 무오조.

서산은 8道16宗 禪敎都總攝이 되어 1,500여명 승군을 이끌고 순안 법흥사에서 집결하였고 금강산에 머물렀던 그의 제자 四溟惟政(1544~1610)도 1,000여명의 승군을 이끌고 합류했다. 그리고 그의 제자 義嚴은 황해도 구월산에서, 處英은 두류산과 두륜산에서, 영규는 공주를 중심으로 충청도에서, 中觀海眼(1567~?)은 진주를 중심으로 영남 지방에서, 奇巖法堅(1522~1634) · 霽月敬軒(1542~1632) · 青梅印悟(1548~1623) · 信悅 · 雙冀 · 法正 등이 전국 각지에서 승군으로 활동하였다.

서산이 이끈 승군의 활동 가운데 주목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산이 이끈 의승군은 평양성 전투에 참가하여 조선이 전쟁에서 逆轉을 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둘째 서산의 제자 처영은 권율과 행주산성 전투에서 승리하였고, 사명유정은 노원평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한성수복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⁴⁹⁾ 셋째 육지에서 패전을 거듭하고 있을 때 이순신은 남해를 중심으로 승리를 거두고 있었는데, 豺虎別都將 慈雲三惠⁵⁰⁾를 비롯해 800여명의 전라좌수영의 義僧水軍이 여천 興國寺를 중심으로 전투에 참가하여 수군이 승리를 하는데 매우 큰 기여를 하였다.⁵¹⁾

49) 이향철, 『히테요시의 조선침략·점령정책과 한성탈환전투』, 『인문사회과학논문집』, 31, 2002 ; 박재광, 『壬辰倭亂期 日本軍의 漢城 점령과 蘆原坪戰鬪』, 『인문사회과학논문집』, 31, 2002.

50) 삼해는 실록에 3건의 기록이 찾아지는데<『광해군일기』권51, 광해군 4년(1612), 3월, 23일 정사조 ; 『광해군일기』권54, 광해군 4년(1612), 6월, 16일 기묘조 ; 『광해군일기』권54, 광해군 4년(1612), 6월, 16일 기묘조> 그는 순천 송광사 출신으로 전라좌수영 산하 의승수군 팔도도총섭 승대장이었던 慈雲三惠였다. 『이충무공전서』에 의하면 이순신 장군휘하에 시호별도장으로 順天寺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義僧水軍이었다. (『李忠武公全書』上, 卷3, 分送義僧把守要害狀, 1593. 1.26; 한국문화연구원, 『松廣寺史庫』, 인물부, 1977. p.563)

51) 순천의 三惠는 豺虎別都將으로 순천을, 고흥에서 산 좌수영(本營)의 義能은 遊擊別都將으로 본영을 수호하였다. 性輝는 右突擊將으로 光陽지역을, 信海는 석주에서, 智元은 팔양재(南原) 등 전장에서 큰 전과를 올렸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실은

이와같이 전장에 직접 참여한 것 외에도 서산과 문도들은 선조의 한성 還駕를 하거나⁵²⁾ 3500명의 포로송환 등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⁵³⁾ 이러한 승군활동에 대하여 명나라 장군 이여송은 칭찬하면서 두루마리 시첩을 보내왔다.⁵⁴⁾ 이순신도 승군의 공로가 많았다고 하여 조정에서 상을 내려 표창해야 한다는 장계를 올렸다.⁵⁵⁾

3. 추념사업과 국가제향

1) 서산의 표창사·수충사 제향

선조는 서산에게 책와 묵죽, 詩를 내린 바 있고,⁵⁶⁾ 승군의 총섭직에서 물러나자 ‘國一都大禪師禪教都總攝扶宗樹教普濟登階尊者’의 贈號

다음의 논고를 참조하기 바란다.(양은용, 『임진난과 호남의 불교의승군』, 『한국종교』 19, 원광대 종교문화연구소, 1994. ; 양은용, 『임진왜란이후 불교 의승군의 동향』, 『인문학연구』 4, 원광대 인문학연구소, 2003.)

52) 徐有隣(1738~1802), 『西山大師表忠祠紀績碑銘』, 『조선불교통사』 7장.; 成海應(1760~1839), 『酬忠祠記』, 『研經齋全集』 卷9, 文1, 記.

53) 『선조실록』 권172, 선조 37년(1604), 3월, 14일 갑자조. 최근에 양은용교수(원광대 한국문화학과)에 의하면 일본의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찾아진다고 한다. 즉 임진왜란 때 함경도 회령에서 임해군(1574~1609)과 그의 장남 및 장녀가 왜장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에게 생포되었다. 일본과 협상에 의해 임해군은 풀려났지만 장녀와 장남 太雄(1589~1665)(당시 4세)은 일본에 볼모로 잡혀갔다. 태웅은 13세 때 法性寺에서 출가해서 일연이라는 법명을 받고 일본 法華宗의 대표적 고승으로 활동하였다고 한다. 일연스님은 72세때 고국 조선이 보이는 장소를 물색하다 후쿠오카(福岡)의 물가 언덕에 묘안사를 창건하고 1665년 1월 26일 세수 77세로 입적했다고 한다.(<만불신문> 2002.11.2.; <http://manbulshinmun.com>.)

54) 成海應(1760~1839), 『酬忠祠記』, 『研經齋全集』 卷9, 文1, 記.

55) 『忠武公全書』 上, 卷3, 『請賞義兵諸將狀』 1593. 3. 10.

56) 『선조수정실록』 권23, 선조 23년(1590), 4월 1일 임신조 ; 『정조실록』 권26, 정조 12년(1788), 7월, 5일 을축조 ; 李晩秀, 『敬次穆陵御賜西山大師韻』, 『履園遺稿』 卷1, 原集 詩. “三教元無異 血性自胚胎 欲識無量德 請觀御什來 吾祖貞珉在 高風仰後生 千秋表忠院 鯨海靜無聲”

를 내렸다. 서산이 입적하자 그의 문도들은 다음과 같이 추념사업을 전개하였다. 부도는 보현사와 안심사 그리고 금강산 유점사에,⁵⁷⁾ 비는 묘향산과 금강산, 해인사 등지에 세워졌다.⁵⁸⁾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것은 서산의 공을 인정하여 국가에서 사당을 짓도록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해남의 표충사, 갑사 표충원, 영변 보현사의 수충사 그리고 밀양의 표충사였다. 밀양 표충사의 경우, 서산의 제자 사명 등과 승군에 공이 있으므로 밀양에 사당을 짓고 제향을 하였고 그 후에 서산을 합사하였다. 즉 밀양의 암자가 있던 곳에 표충사를 짓고 춘추로 제향을 하였으나 병자호란으로 퇴폐해졌다.⁵⁹⁾

그후 1714년(숙종 40)에 밀양군수 金昌錫이 이것을 유감스럽게 여겨 관찰사 趙泰億으로 하여금 啓를 올려 나라에서 祭需를 내려줄 것을 청하였다. 이에 국가에서는 전처럼 제수를 지급토록 하였고 사당을 다시 세워 사명과 그의 스승인 서산, 임진왜란 때 錦山싸움에서 전사한 騎虛의 영정을 모셨다.

그 뒤 南鵬이 크게 중창하고자 1738년(영조 14)에 사명의 行蹟을 갖추어 임금에게 상소를 올렸다.

-
- 57) 李廷龜(1564~1635), 『淮陽 表訓寺 白華庵 淸虛堂休靜大師碑』, 『조선금석총람』~상.; 張維(1587~1638), 『海南大興寺 淸虛堂休靜大師碑文』, 『조선불교통사』~장.
 58) 張維(1587~1638), 『海南大興寺 淸虛堂休靜大師碑文』, 『조선불교통사』~장.; 정영호, 『청허당 휴정대사부도에 대한 고찰』, 『불교미술』 4 (한국불탑특집). 동국대학교 박물관, 1979.; 정영호, 『청허당, 사명당 석조삼존비상』, 『문화사학』. 18. 서울: 한국문화사학회, 2002.
 59) 李德守, 『有明朝鮮國 嶺南密州 靈鷲山 表忠祠事蹟碑』; 李德壽, 『表忠祠事蹟記』, 『西堂私載』~卷4, 記. 『밀양 표충사 西山大師碑銘』에 의하면 “西山大師 休靜이 그의 제자 惟政 등을 거느리고 倡義해 僧兵을 모집하고 國勢를 중흥하여 큰 공로를 세웠다. 이에 선조가 그의 공로를 가상하여 여겨 嶺南 密陽에 表忠祠를 세우고 휴정과 유정을 함께 配享하라고 명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의 忠義에 대해 表彰하고 장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李雨臣(1670~1744), 『밀양 표충사 西山大師碑銘』, 『조선불교통사』~장.>라고 하여 선조대에 밀양 표충사에 서산을 제향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서산의 제향은, 이덕수의 비문이나 후술하듯이 후에 합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 성상의 무오년(영조 14, 1738) 봄에 송운대사의 法孫 南鵬이 대사의 행적이 잊혀지고 드러나지 않는 것을 애석하게 여겨 여러 벼슬아치들에게 두루 고하였다. 이에 相國과 金公, 趙公, 宋公이 감격하여 ‘제수만을 지급하는 것은 대사의 공에 보답하고 세상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다.’하고, 마침내 御前에서 아뢰어 특별히 復戶 5結을 주고, 또 本道에 명하여 祠宇를 重修하도록 하였는데, 승려 翠眼과 尙玄 등이 그 일을 맡아 처리하였고 남봉이 총괄하였다.⁶⁰⁾

영조는 교지를 내려 표충사의 雜役을 면제해주고, 田畓 5結을 내렸으며, 경상도 관찰사에게 중수하도록 명하였다. 남봉이 총책임을 맡고, 演初·翠眼·最心·尙玄 등이 도왔다. 祠宇를 단청을 하고, 사명의 영정을 중앙에, 좌우에 서산과 기허 삼화상 영탱으로 모셨다.⁶¹⁾

같은 해인 1738년(영조 14)에는 영조의 명으로 表忠院이 충남 공주 갑사에 건립되었다. 사명·서산·기허 등 3인 고승의 진영이 중앙에 봉안되어 있다. 1845년(헌종 11) 충청도 관찰사 姜時永이 官費를 모아 현 위치로 표충원을 옮겨 지었다고 한다.⁶²⁾

그리고 해남 대둔사에도 표충사가 건립되었는데 1788년(정조 12) 서산의 7세 法孫인 天默의 건의로 이루어졌다.

60) 李德守, 『有明朝鮮國 嶺南密州 靈鷲山 表忠祠事蹟碑』; 李德壽, 『表忠祠事蹟記』, 『西堂私載』卷4, 記.

61) 장동표, 『조선후기 밀양 표충사의 연혁과 사우이건 분쟁』, 『역사와 현실』 35, 한국역사연구회, 2000. ; 『사명당 유정』, 사명당기념사업회, 2000. ; 조영록, 『유불 합작의 밀양 표충사 -유 불 조화적 실상』, 『사명당 유정』, 사명당기념사업회, 2000. ; 이철현, 『밀양 유림의 표충사 수호』, 『한국불교학』 47, 2007.

62) 경월쾌수, 『公州甲寺騎虛大師書院移建文』, 1845년 作(사당내 소재). 973년 의승장 영규대사사적현창회가 발족되어 1974년에 이곳에 대사의 묘역을 새로 정화하고 岬寺 表忠院에 『義僧將靈圭紀蹟碑』(정인보 지음, 김웅현 새김, 1973년작.)를 세웠다. 그후 200년 ‘靈圭大祭’를 갑사에서 처음으로 지낸 바 있다.

옛날 우리 西山祖師께서 임진왜란을 당하여 門人인 惟政과 處英 등과 더불어 임금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왜적을 물리친 공을 세워 여러 차례 褒賞을 받았다. 지금의 왕 12년 무신년(정조 12, 1788년)에 大菴寺의 승려 天默과 戒洪 등이, 嶺南에 있는 泗溟書院에서 서산대사를 도리어 配享하였다. 서산대사는 僧兵을 제일 먼저 주장하였고 존경받는 스승의 지위에 있는데 거꾸로 이와 같이 되어, 朝家에서 포상하고 아름답게 여기는 것이 泗溟에게는 미치고 서산대사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것은 백세의 欠典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京師로 달려와 임금의 수레가 지나가는 길에서 上言하는 바, 이 일이 戶部尙書 徐有隣에게 맡겨졌다.⁶³⁾

天默은 서산이 입적한 지 185년이 되던 해인 1788년(정조 12) 밀양의 표충사에서 서산 보다 그의 제자 사명을 더 중요하게 모시는 것을 아쉽게 여겨 ‘발에 물집이 생기도록 걸어와’ 편액을 써 줄 것을 조정에 요청하였다. 이러한 상소는 戶部尙書 徐有隣에게 맡겨졌다.

徐有隣이 아뢰었다. “승려 休靜의 사적이 고 재상 李廷龜·張維가 지은 비문에 실려 있는데, 비문에 ‘西山大師가 임진 왜란 때 국가를 위해 의병을 일으키자 宣廟께서 八道十六宗都總攝으로 삼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 내리신 宣廟의 傳敎와 衣鉢이 호남 大菴山에 간직되어 있으니, 영남의 예에 따라 사당 세우는 것을 허락하였다. 이어 表忠이란 두 글자의 扁額을 내리는 것이 조정에서 褒獎하는 뜻에 부합됩니다.” (왕이) 윤허하였다.⁶⁴⁾

이와 같이 대둔사에는 선조의 관교와 의발이 간직되어 있었고, 소위 ‘西山 遺意’가 있었던 사찰로 알려지면서 대둔사의 표충사가 더욱 중요

63) 蓮潭有一(1720~1799), 『表忠祠建祠事蹟碑』, 조동원, 『한국금석문대계』1, 원광대학교출판국, 1979.

64) 『정조실록』~권26, 정조 12년(1788), 7월, 5일 을축조.

하게 되었다.

임종시에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였다. “내가 죽거든 衣鉢을 받드시 海南으로 보내 말도록 해다오. 그 고을에 頭崙山이라는 산이 있고 大菴寺란 절이 있다. 남쪽으로는 達摩山을 바라보고 북쪽으로는 月出山을 바라보며, 동쪽으로는 天冠山이 있고 서쪽으로는 仙隱山이 있다. 내가 참으로 즐기는 곳이다. 또 해남은 황폐한 고장이라 국왕의 교화가 미치지 못하여 백성의 풍속이 어리석고 미혹하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보고 감화되어 忠에 흥기되는 바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⁶⁵⁾

정조는 서산의 충성을 가상하게 여겨 表忠이라 賜額하고 贈職을 더 높여 주었다. 그 이듬해인 1789년 4월 정조는 禮官을 보내어 재계하고 香祝을 올리고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그리하여 서산과 제자 사명 그리고 뇌묵이 사당에 享祀되고 영남과 湖南 천리 안에서 서로 우러러 받들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고 한다.⁶⁶⁾

또한 영변 보현사에도 수충사가 건립되어 제향되었다. 즉 서산이 죽은 뒤 그의 문도들에 의하여 영정이 봉안되어오다가, 1787년(정조 11) 전라남도 해남의 대흥사에 表忠祠가 건립된 것을 계기로 묘향산에도 사우가 창건되었다. 이는 1794년 평안도관찰사 李秉模의 요청에 따라 조정에서는 수충사라는 현판을 내렸다.⁶⁷⁾

癸丑年에 觀察使 臣 秉模가 行 部 至山 見 승도들이 祠屋을 지어 옛날 내원에 있던 스님의 초상을 옮겨 거는 것을 보게 되었다. 곧 장계로 사액

65) 徐有隣(1738~1802), 『西山大師表忠祠紀績碑銘』, 『조선불교통사』~장.

66) 위와 같음. 창건 당시 표충사는 대웅전을 바라보는 곳에 창건되어 있었는데, 1836년(헌종 2) 동남쪽의 主山으로 옮겨 졌다가 1860년(철종 11) 본래의 위치로 다시 자리를 잡았다.

67) 『정조실록』~권39, 정조 18년(1794), 3월, 16일 계묘조.

해 주고 관에서 祭需를 줄 것, 그리고 惟政을 제사지내게 해 줄 것을 청하였다.

임금께서 그것을 특별히 윤허하고, 酬忠이라 賜額하고 신에게 비문을 찬술할 것을 명하였다. 부처님 나신 날에 초상에 제사를 드리고 禮官이 兼史로서 부근 산에 이르니 수령이 모두 다 執事 禪門과 함께 자리를 메어 웅립하였으며 사부대중들이 손뼉 치며 반겼다. 그러므로 영과 음이 힘을 모아서 역사를 도와서 규모가 크게 갖추어졌다.⁶⁸⁾

수충사에 서산과 그의 제자인 사명과 뇌묵의 영정이 봉안되어 승려로 하여금 관리케 하였다. 관리를 파견하여 제사를 지내고 지방관을 파견하여 祭田을 지급하였다. 당시 정조는 서산의 화상에 대한 찬문을 다음과 같이 남기고 있다.

… 중간에는 宗風을 발현하여 국난을 크게 구제하고 의병을 창설하여 군왕을 구제한 元勳이 되어 요사스럽고 腥羶한 기운이 손을 따라 맑아졌다. 지금까지 방편으로 세상을 제도한 공적은 閻浮提・無量劫에 영원히 의지할 것이다….

내가 影堂의 편액을 요청하는 서남 도백의 청에 따라 남도는 表忠堂이라고 하사하고, 서도는 酬忠堂이라고 하사하고, 관리에게 명하여 祭需를 주어 해마다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금년이 갑인년(1794, 정조18)이므로 洪武 갑인년(1374, 공민왕23)에 善世禪師에게 시를 하사한 고사를 추억하여 서설과 명문을 지어 영당에 걸게 하고자 한다.….⁶⁹⁾

아울러 표충사와 수충사의 사례에 따라 조선 건국의 개국원훈인 무학이 머물렀던 석왕사에도 사당이 지어져 제향되었다.⁷⁰⁾

68) 李秉模, 『酬忠祠碑』, 조선총독부, 『조선금석총람』 하, 1919.

69) 정조, 『西山大師畫像堂銘并序』, 『弘齋全書』 권53.

70) 『정조실록』 권34, 정조 16년(1792), 윤4월, 24일 임진조.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할 것은 숙종대 이전에 고승에 대한 추송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이다. 이는

2) 고승의 추념과 국가제향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조대와 영·정조대 서산에 대한 국가 추념사업 외에는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다. 이는 위정자 내지 유림 지도자들의 무지와 편견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사헌부가 아뢰었다. “국가가 어려움이 많아 적을 토벌하는 것이 시급한 지라, 다만 將才가 부족함으로 인하여 異類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함께 거두어 쓰고 있습니다.

승려인 休靜에게도 병권을 맡기었는데, 조정의 수치가 극심합니다. 휴정은 적을 초토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방자한 마음만을 품어 많은 추종자를 거느리고 앞뒤에서 호위하게 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말을 타고 宮門 밖에 이르러서는 걸어가는 朝臣들을 만나도 거만스레 벼슬아치나 재상의 체통을 보입니다. 조금도 중다운 태도가 없으니 추고하여 엄히 다스리도록 명하시어 후일을 징계하소서.”임금이 말하였다. “이런 무리의 일을 어찌 다 헤아릴 것이 있겠는가. 그러나 아뢴 대로 하라.” 71)

위의 인용한 글에서 보듯이 유생들은 서산이 병권을 가지게 되자 조정의 수치라고 생각하면서 서산의 승군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심지어는 서산이 승려로서의 품위도 없다고 매도하였다. 이러

아마도 숙종에서 영·정조로 이어지면서 조선 고유의 진경문화가 창출되고 문예진흥이 활기차게 이루어지던 문화기반은 승려들의 문집도 성행하는 등 불교계의 중흥분위기 때문일 것이다.(정병삼, 『4. 불교계의 동향』, 『(신편)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1998. p.138)

아울러 무학대사가 영·정조대에 개국원훈으로 부각되었듯이 국가적인 위상을 지닌 고승들이 조정에도 부각되었을 것이다.(『정조실록』 권34, 정조 16년, 윤4월, 24일 임진조; 황인규, 『무학대사연구-여말선초 불교계의 혁신과 대응』, 해안, 1999. p.134) 이에 대해서는 후에 보다 정치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71) 『선조실록』 권38, 선조 26년(1593), 5월, 15일 무진조.

한 내용은 당시 실록에 다음과 같이 간간히 찾아지고 있다.

사간원이 아뢰었다. “…休靜의 僧軍을 무단히 방송하고 대책을 세우지도 않았으며 형세가 군색하게 되었어도 치계하지 않았으니 매우 그릅니다.…”⁷²⁾

휴정은 승려의 우두머리로서 스스로 그의 무리를 거느리고 國難에 달려가서 斬馘의 공이 약간 있었다. 이 뒤로는 스스로의 공을 믿고 교만 방자하여 行宮 御門 밖에서까지 말을 타고 橫行하였는데 혹은 闕中의 출입을 허락받기까지 하였다.⁷³⁾

위의 인용한 기록에서 보듯이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서산의 승군활동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나아가 수원승도적 인 전통과 승군 등 불교의 국가비보적 사상 등 역사의 무지와 불교에 대한 편견이었다. 때문에 올바른 역사인식이 있어야 고승들의 국가적 역할을 제대로 알 수 있으며, 그러한 고승들의 고귀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적 추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전근대 전통사회에 있어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적 비중이 있는 선현을 성현으로 추앙하는 경우가 많았다. 선왕이나 공신과 불교계의 왕사나 국사도 그 추앙의 대상이 되었다.⁷⁴⁾ 고려시대의 경우 추념된 선현은 최치원과 원효 등이 대표적이다. 공자를 비롯한 유학자의 위패나 영정이 국자감과 향교의 문묘에 봉안되었지만 부처와 고승은 소상이나 영정으로 조성되어 사원에 많이 봉안되었다.⁷⁵⁾ 983년(성종

72) 『선조실록』 권35, 선조 26년(1593), 2월, 5일 경인조.

73) 『선조실록』 권40, 선조 26년(1593), 7월, 19일 신미조.

74) 이와는 반대로 인물을 매도하는 경우도 없지 않은데 그 대표적인 인물로 신라 말의 공예, 고려 중기의 묘청, 고려 말의 신돈이다. 이들은 불교계 고승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대 인물 가운데 가장 왜곡된 경우에 해당된다.

2) 공자와 그의 제자 72현이 문묘에 종사된 이래 현종 13년 1월 薛聰이 弘儒侯로 추증되고 이어 공자묘에 배향되었다. 그 이듬해인 현종 14년 최치원이 文昌侯로 추봉되었다.⁷⁶⁾ 그리고 불교고승의 경우 숙종조에 원효와 의상을 추증하고 추념사업을 전개하였던 사실이 주목된다.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元曉와 義湘은 우리나라의 성인이다. 그런데 비문도 시호도 없어서 그 덕이 알려지지 않고 있으므로 나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원효는 大聖和靜國師로, 의상은 大聖圓教國師로 추증한다. 해당 관청에서는 그들의 살던 곳에 비를 세워 공덕을 새겨 영원히 기념하게 하라!”⁷⁷⁾

고려 왕조는 전시대의 인물인 원효를 大聖 和靜國師로, 의상은 大聖 圓教國師로 추증하였다. 그후 인종도 원효와 의상과 더불어 도선에 대하여 봉작을 추증하였다. 대개의 경우 국가적 위기에서 덕행이 높은 고승을 추증하였고⁷⁸⁾ 원나라 간섭기 충렬왕대에도 旱災가 계속되자 최치원과 설총과 더불어 도선에게 봉작을 추가하였다.⁷⁹⁾ 이에 앞서 명종시 진표의 비가 세워지는 등 추념사업을 전개하여⁸⁰⁾ 고려 중기 원효·의상·진표·도선이 四聖으로 추념되었다. 이와는 달리 원효·의상·도선·혜심이 四聖으로 추송된 사례를 찾을 수 있다.⁸¹⁾

조선 초 정도전 보다 먼저 이성계에게 혁명을 종용하였던 무학자초

75) 허홍식, 『고려중기 四聖의 追念과 선각국사비의 건립』, 『도선연구』, 민족사, 1999, p.191.

76) 『고려사』~권5 현종세가, 현종 14년(1023) 2월 병오일. ; 『고려사』~권4, 현종세가, 현종 13년(1022), 정월 갑오조.

77) 『고려사』~권11, 숙종세가, 숙종 6년(1101), 8월 계사조.

78) 『고려사』~권15 인종세가, 인종 6년(1128), 4월 을묘조.

79) 『고려사』~권29 충렬왕세가, 충렬왕 임오 8년(1282) 5월 경신조.

80) 瑩峯, 『關東 楓岳山 鉢淵漱 開張祖 眞表律師 眞身骨藏立石碑銘』, 李智冠,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고려편4), 伽山文庫, 1997.

81) 경암관식, 『鰲山記』, 『鏡巖集』~卷下 : 『한국불교전서』~T0, p.441.

를 비롯한 그의 스승 나옹혜근이 한성의 랜드마크라고 할 남산의 정상 國祀堂에 봉안되었다.⁸²⁾ 실록에 의하면, 이조에 명하여 白岳을 鎮國伯으로, 南山을 木覓大王으로 삼아, 卿大夫와 士庶人은 제사를 올릴 수 없게 하고⁸³⁾ 국가의 공식행사로 祈雨祭와 祈晴祭를 지냈다.⁸⁴⁾ 예컨대 白岳과 木覓의 神主를 고쳐서 만들었고 山川의 祀典제도의 小祀로 제향되었다.⁸⁵⁾ 『漢京識略』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찾아진다.

목멱산 꼭대기에 있다. 매년 봄과 가을에 醺祭를 행한다. 남산 꼭대기에 國祀堂이 있다. 이것이 木覓神祠이다. 祠堂 가운데 畫像이 있다. 이것이 유명한 僧 無學의 화상이라 전한다. 매년 봄과 가을에 목멱신사의 제사 때에는 사당 가운데 화상을 池閣에 옮긴다.⁸⁶⁾

이와 같이 서울을 지키는 4대 산 가운데 朱雀 혹은 案山인 남산의 정상에 木覓神祠가 있었고, 매년 봄·가을에 醺祭를 지냈다.⁸⁷⁾ 『朝鮮古今人物誌』에 의하면 ‘지금도 서울 木覓山 꼭대기에 堂을 설치하고 無學을 모시고 國祀堂이라 한다. 많은 서울 사람들이 날마다 사당을 찾아가 복을 빈다.’고 하였다.⁸⁸⁾

그 후 사찰에서 사당을 지어 국가적으로 제향한 사례는 공주 東鶴寺

82) 황인규, 『무학대사연구-여말선초 불교계의 혁신과 대응』, 혜안, 1999.

83) 『태조실록』 권6, 태조 3년(1394), 12월, 3일 무진조; 『태조실록』 권8, 태조 4년(1395), 12월, 29일 무오조.

84) 『태조실록』 권8, 태조 4년(1395), 12월, 29일 무오조; 『태종실록』 권23, 태종 12년(1412), 2월, 6일 신유조; 『태종실록』 권15, 태종 8년(1408), 5월, 22일 경오조; 『태종실록』 권18, 태종 9년(1409), 7월, 5일 을해조; 『태종실록』 권21, 태종 11년(1411), 5월, 21일 신사조; 『태종실록』 권21, 태종 11년(1411), 5월, 23일 계미조.

85) 『태종실록』 권28, 태종 14년(1414), 8월, 21일 신유조.

86) 『漢京識略』 권1, 祠廟, 木覓神祠. “南山頂有國祀堂 則木覓神祀 祀中 有畫像 俗稱僧 無學像 每於春秋木覓神祠時 祠中畫像 則移于池閣”

87)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 한성부, 산천조.

88) 『朝鮮古今人物誌』 無學條.

에서 찾을 수 있다. 설잠 김시습은 경내 초혼각(1908년 肅慕殿으로 개칭)에 안치된 死六臣에 대하여 招魂제사[齋]를 지내게 하였다.⁸⁹⁾ 이 때 각 지방에서 曹尙治·李蓄·鄭之產·宋侃·趙旅·成燾 등 유림과 明禪·月峯·雲波·坦禪 등이 와서 참여하였다. 탄선이 기문을 썼고⁹⁰⁾ 조상치가 告由하고 설잠이 헌작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참배하였다.⁹¹⁾ 당시 설잠은 80세의 노승 坦禪과 明禪(明釋)·月峯(月峰)·雲波 등의 승려와 함께 승려로서 齋를 올렸다.⁹²⁾

이처럼 동학사의 초혼각에 대한 제사[齋]는 설잠 이전의 시기부터 왕명으로 儒林과 佛徒로 하여금 수호케 한 것이었지만⁹³⁾ 훗날 표충사와 수충사의 전례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석왕사 사당에서 개국 원훈이었던 무학에 대하여 춘추로 제향하게 하였다.

예조 판서 徐浩修가 復命하였다. … 서호수가 또 아뢰었다. “釋王寺 土窟의 옛터에 無學大師의 조그마한 肖像이 있는데, 승려들이 모두 말하기를 ‘休靜과 惟政은 임진왜란 때의 戰功으로 모두 사당을 세우고 賜額을 하였는데, 무학 대사는 곧 개국 1등 공신[開國元勳]인데도 전적으로 奉享하는 곳이 없다. 돌아가면 임금께 아뢰어 조그마한 초상을 모사하여 토굴에 모시고 春秋로 제사를 지내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청컨대 소원대로 허락하소서.” 이에 따랐다.

때문에 명하였다. “賜額하는 일은 密陽의 表忠寺와 海南의 大菴寺의 전

89) 이 보다 앞선 시기인 조선초 治隱 吉再가 승려 月影과 雲禪과 함께 고려말의 충신 포은 정몽주를 위해 동학사에서 제사를 올렸고(蔡東陽, 『招魂閣重修記』, 『매월당집』~부록 권2) 후에 三隱閣이 모셔졌다. 이 건물 옆에 사육신의 초혼각에 사육신에 대한 제사를 지냈다.

90) 坦禪, 『東鶴寺招魂閣事蹟』, 『漁溪集』~續集 권3. : 『莊陵史補』~『東鶴見聞錄』, 『매월당집』~부록 권2 『上王服喪錄』.

91) 윤과, 『祝文』, 『매월당집』~부록 권2.

92) 황인규, 『정환설잠의 승려로서의 불교계 활동과 교유인물』, 『한국불교학』~40, 한국불교학회, 2005.

93) 坦禪, 『上王服喪錄』, 『莊陵史補』, 『동학건문록』~『매월당집』~부록 권2.

례에 따르고, 大師의 號도 또한 두 절의 전례를 적용하여 祠額은 釋王이라 하고 대사의 호는 開宗立教普照法眼廣濟功德翊命興運大法師라고 하라. 액자를 내리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畿內에서 差使員을 정하여 차례 차례 역전으로 가서 지방관으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라.”⁹⁴⁾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당시 임진왜란시 국가적 위업과는 달리 중국의 황제나 장군의 그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이다. 바로 大報壇과 關王廟에 대한 추념사업이 그 대표적인 것이며, 조선후기 새롭게 국가제사에 추가된 편입되었다.⁹⁵⁾

대보단은 임진왜란 때 일본의 침략을 저지하고 우리나라의 수호를 위해 군대를 파견했던 명나라 神宗의 은혜를 추모하기 위해 쌓은 祭壇이다.⁹⁶⁾ 1704년(숙종 30) 예조판서 閔鎮厚의 발의로 옛 內氷庫의 터에

94) 『정조실록』~권34, 정조 16년(1792), 윤4월, 24일 임진일.

95) 국가적 추념사업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비교적 많이 이루어졌다.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최광식, 『신라 국가제례의 체계와 성격』, 『한국사연구』118, 한국사연구회, 2002.; 김철웅, 『고려 국가제례의 체계와 그 특징』, 『한국사연구』118, 한국사연구회, 2002.; 이영춘, 『조선후기의 사건의 재편과 국가제사』, 『한국사연구』118, 한국사연구회, 2002.; 이육, 『조선 전기 유교국가의 성립과 국가제사의 변화』, 『한국사연구』118, 한국사연구회, 2002.; 최석영, 『한말 일제 강점기 국가제례 공간의 변화』, 『한국사연구』118, 한국사연구회, 2002.; 이육, 『근대 국가의 모색과 국가의례의 변화 - 1894~1908년 국가 제사의 변화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원』9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

국가제사에 대한 저술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최광식, 『고대한국의 국가와 제사』, 한길사, 1994.; 채미하,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해안, 2008.; 나희라, 『진라의 국가제사』, 지식산업사, 2003.; 김철웅, 『한국중세의 길례와 잡사』, 경인문화사, 2007.; 한형주, 『조선초기 국가제례 연구』, 서울: 일조각, 2002.; 이육, 『조선시대 재난과 국가의례』, 창비, 2009. 불교계의 국가추념사업도 기간의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연구가 요망된다.

96) 정옥자, 『대보단 창설에 관한 연구』, 『변태섭박사 화갑기념 사학논총』, 삼영사, 1985.; 김호, 『영조의 대보단 증수와 명 삼황의 향사』, 『한국문화』32, 한국문화연구소, 2003.; 정옥자, 『대보단과 순조대 명 삼황에 대한 후향』, 『한국학보』120, 일지사, 2005.; 이육, 『조선후기 전쟁의 기억과 대보단 제향』, 『종교연구』42, 한국종교학회, 2006.

지었다.⁹⁷⁾ 예조에서는 大報壇의 祭器와 圭瓚에 대해서 宗廟에서 사용하는 체제와 모양을 따르도록 하였고⁹⁸⁾ 임금이 친히 나아가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⁹⁹⁾

또한 임진왜란 때에 명나라 군사들에 의해 關王廟가 건립되어 제사도 지냈다. 1598년(선조 31) 한성 숭례문 밖에 남관왕묘가 건립되었고 동관왕묘와 북관왕묘가 세워졌다. 그리고 1598년 경 강진·안동·성주·남원 등 지방에도 관왕묘가 건립되었다.¹⁰⁰⁾

이렇듯 조선후기 국가의 추념사업이 事大와 國是에 의해 이루어졌다. 즉 유교적 가치에 의하여 중국에 사대하여 중국황제에 대한 제향을 하였다. 따라서 서산대제가 국가적으로 제향되기 위해서는 오늘날 불교가 국가의 유지 발전에 있어서 어떤 순기능을 하는지, 그럴 경우 서산의 불교계에서의 역할은 무엇인지, 나아가 국가의 발전에 있어서 서산의 위상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재정립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나가는 말

서산대사는 조선불교를 중흥시킨 고승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 오늘날 대부분의 승려들은 모두 서산의 문도라도 할 정도다. 그런데 조선 건국 후 승유억불시책으로 불교가 탄압을 받았고 연산군대에 이르러서는 종단마저 없어져 불교는 산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때 걸출한 고승 서산이 智異山·金剛山·妙香山을 중심으로 수행과

97) 『숙종실록』 권40, 숙종 30년(1704), 12월, 21일 정해조.

98) 『숙종실록』 권41, 숙종 31년(1705), 1월, 13일 무신조.

99) 『숙종실록』 권41, 숙종 31년(1705), 3월, 9일 계묘조.

100) 『고종실록』 권42, 고종 39년(1902) 10월 4일조; 장장식, 『서울의 관왕묘 건치와 관우신앙의 양상』, 『민속학연구』 T4. 국립민속박물관, 2004; 이윤희, 『조선 후기 관우신앙 연구』, 『동학연구』 20. 한국동학학회, 2006; 전인초, 『관우의 인물조형과 관제신앙의 조선전래』, 『동방학지』 T3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6.

포교를 하면서 불교계를 결집하고 주도하였다.

그런데 마침 왜군의 침략으로 전국토가 유린될 때 선조의 제안을 받아들여 전국의 승려에게 격문을 돌려 5000여명의 승군으로 전장에 참가하였다. 이러한 활동으로 조선불교 내지 승려의 존재와 위상을 높여 불교가 그나마 명맥을 이어갔다고 하는 것이 종래 통설인 듯 하다. 그러나 실제 불교나 승려의 위상이 높아진 부분도 있지만 總攝制下에 묶여 산성축조 등 국가의 노역에 동원되었을 뿐이었다. 임진왜란시 불교 義僧軍의 역할과 의미는 절대적이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不殺戒’의 계를 어기면서까지 승군활동에 뛰어든 것은 불교계가 살아남기 위한 몸짓이 아니라 불교가 지니고 있는 국가비보사상의 발현이었다.

이러한 불교계는 산중중심의 불교를 전개해 가면서 왕실의 능침사찰의 수호를 위한 제향도 담당하였다. 그러면 국가는 자기희생적인 정신을 발휘한 보살적 행위에 대하여 어떤 예우와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하였을까? 아쉽게도 임란직후 선조대와 영·정조대를 제외하면 뭐 이렇다고 할 추념사업을 벌인 적이 없다. 무엇 때문일까?

이는 위정자와 지도자들의 역사에 대한 무지와 문화에 대한 편견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래 나름대로 그 역할을 다하였고 국가나 민중은 불교의 가르침대로 살아왔다. 신라의 경주 皇龍寺 9層 木塔을 짓고서 세 나라가 하나로 통합되어 ‘우리’의 진형적 틀을 마련했고 부처님의 나라라는 자부심으로 佛國寺와 石佛寺를 창건하였다, 신라 말 선각국사 도선의 국가비보사상에 의거하여 절이 창건 또는 운용되었고, 이러한 사상에 의하여 隨院僧徒가 국가와 사원에 소속되어 있었다. 신라 말 왕건의 行軍法師 能兢이나 무신집권기 金允候, 고려 말 이성계의 군사참모 神照, 내원당 고승 玄麟은 바로 승군의 수장이었다.

조선시대 위정자 및 성리학적 예제의 주체자인 士林들의 역사의 흐름에 대한 무지로 인해 국가비보사상을 부정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우리가 중심이 아닌, 중국 중심의 中華思想에 매몰되는 현상을 가져왔다. 당시 중화사상은 성리학 문화와 밀접한 것으로, ‘자기’ 외에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오류를 낳았다. 이것이 바로 필자가 말하는 문화의 편견이다. 그리하여 큰 것을 섬기는 ‘事大’만이 강조되고 불교의 가르침을 섬기는 ‘事佛’은 저 너머로 밀리게 되었던 것이다.

임란 당시 불교가 유자들의 뭍까지도 대신하여 지켜냈던 국가는 우리의 삶터요, 공동체였다. 불교가 사찰을 중심으로 승도들이 모여 만들고 즐겼다. 이것이 바로 香徒로, 미륵사상을 기치로 내세운 김유신이 龍華香徒였다. 그러한 사상을 계승하여 국가적으로 수용한 것이 향도 내지 수원승도적 전통 그리고 국가비보적 승군활동이다.

그렇지만 조선시대에는 ‘事佛’이 아닌 ‘事大’로 일관한 문화의 편견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임진왜란사에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에 대해서는 뒷전으로 하고 명나라 황제나 장군에 대한 추념을 내세우는 오류를 저지르고 말았다. 그것이 바로 대보단과 관왕묘의 건립과 숭앙이다.

다행히도 ‘事大’의 물결 속에 ‘事佛’했던 영·정조대에 그러한 공과가 인정되어 밀양과 해남의 表忠祠와 갑사의 表忠院 그리고 영변의 酬忠祠가 건립되어 국가에서 한 때 제향하였다. 이미 고려시대 원효·의상·진표·도선에 대한 四聖에 대한 추념이 있었고 조선 초 개국원훈이었던 無學이 한성의 랜드마크라고 할 목멱신사인 國祀堂에 모셔져 춘추로 제향되었다. 세조대에도 공주 東學寺에 사육신 등 사당이 건립되어 추념되었다. 이는 갑사의 表忠院, 밀양과 해남의 表忠祠와 영변의 酬忠祠의 전례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원전류

『삼국유사』, 『삼국사기』, 『고려사』, 『고려사절요』, 『태조실록』, 『정종실록』, 『태종실록』, 『성종실록』, 『선조실록』, 『선조수정실록』, 『숙종실록』, 『영조실록』, 『정조실록』, 『고종실록』~

『고려도경』, 『동국이상국집』, 『동문선』, 『양촌집』, 『어계집』, 『변암집』, 『운평집』, 『성담집』, 『연경재전집』, 『이재난고』, 『청정관전서』, 『다산시문집』, 『서당사재』, 『홍재전서』, 『한경지략』

『진각국사어록』, 『원감국사어록』, 『호산록』, 『매월당집』, 『청허당집』, 『대각등계집』, 『중관대사유고』, 『경암집』, 『해봉집』, 『화엄사지』, 『조선사찰사료』, 『조선불교통사』, 『조선금석총람』, 『한국금석문대계』, 『신증동국여지승람』

단행본

신법인, 『서산대사의 선가귀감연구』, 김영사, 1989.

손병옥, 『서산 조선을 뒤엎으려 하다』, 정보와사람, 2006

신지견, 『세계화 시대의 한국 서산사상과 신자유주의』, 화은각, 2008. 6.

최광식, 『고대한국의 국가와 제사』, 한길사, 1994.

채미하,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혜안, 2008.

나희라, 『신라의 국가제사』, 지식산업사, 2003.

김철웅, 『한국중세의 길례와 잡사』, 경인문화사, 2007.

한형주, 『조선초기 국가제례 연구』, 서울: 일조각, 2002.

이육, 『조선시대 재난과 국가의례』, 창비, 2009.

황인규, 『무학대사연구-여말선초 불교계의 혁신과 대응』, 혜안, 1999.

황인규, 『고려후기·조선초 불교사연구』, 혜안, 2003.

황인규, 『고려말·조선전기 불교계와 고승연구』, 혜안, 2005.

논문류

우정상, 「서산대사의 출가동기」, 『녹원』 ㉔·5, 녹원사, 1958. 4·8 : 『조선전기 불교사상연구』,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5.

김경탁, 「서산대사의 생애와 사상」, 『아세아연구』 T3-3,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0.

- 송천은, 「휴정의 사상」, 『송산박길진박사화갑기념논총 한국불교사상사』, 원광대학교, 1974.
- 권기중, 「서산의 화사상」, 『불교학보』 15,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1978.
- 우정상, 「서산대사전 약고」, 『조선전기불교사상연구』,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5.
- 김용태, 「조선중기 불교계의 변화와 ‘서산계’의 대두」, 『한국사론』 44, 서울대학교사학과, 2001.
- 김형중, 「휴정의 선시연구」, 연변대 박사학위논문, 2000.
- 장동표, 「조선후기 밀양 표충사의 연혁과 사우이건 분쟁」, 『역사와 현실』 35, 한국역사연구회, 2000.; 『사명당 유정』, 사명당기념사업회, 2000.
- 조영록, 「유, 불 합작의 밀양 표충사 -유, 불 조화적 실상」, 『사명당 유정』, 사명당기념사업회, 2000.; 이철현, 「밀양 유림의 표충사 수호」, 『한국불교학』 47, 2007.
- 정영호, 「청허당 휴정대사부도에 대한 고찰」, 『불교미술』 4 (한국불탑특집), 동국대학교박물관, 1979.; 정영호, 「청허당, 사명당 석조삼존비상」, 『문화사학』 18, 서울: 한국문화사학회, 2002.
- 이향철,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점령정책과 한성탈환전투」, 『인문사회과학논문집』 31, 2002.
- 박재광, 「壬辰倭亂期 日本軍의 漢城 점령과 蘆原坪戰鬪」, 『인문사회과학논문집』 31, 2002.
- 양은용, 「임진난과 호남의 불교의승군」, 『한국종교』 19, 원광대 종교문화연구소, 1994.
- 양은용, 「임진왜란이후 불교 의승군의 동향」, 『인문학연구』 4, 원광대 인문학연구소, 2003.
- 최광식, 「신라 국가제례의 체계와 성격」, 『한국사연구』 118, 한국사연구회, 2002.
- 김철웅, 「고려 국가제례의 체계와 그 특징」, 『한국사연구』 118, 한국사연구회, 2002.
- 이영춘, 「조선후기의 사전의 재편과 국가제사」, 『한국사연구』 118, 한국사연구회, 2002.
- 이욱, 「조선 전기 유교국가의 성립과 국가제사의 변화」, 『한국사연구』 118, 한국사연구회, 2002.
- 최석영, 「한말 일제 강점기 국가제례 공간의 변화」, 『한국사연구』 118, 한국사

- 연구회, 2002.
- 이욱, 「근대 국가의 모색과 국가의례의 변화 - 1894~1908년 국가 제사의 변화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원』 9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
- 정옥자, 「대보단 창설에 관한 연구」, 『변태섭박사 화갑기념 사학논총』, 삼영사, 1985.
- 김호, 「영조의 대보단 증수와 명 삼황의 향사」, 『한국문화』 32, 한국문화연구소, 2003.
- 정옥자, 「대보단과 순조대 명 삼황에 대한 후향」, 『한국학보』 120, 일지사, 2005.
- 이욱, 「조선후기 전쟁의 기억과 대보단 제향」, 『종교연구』 42, 한국종교학회, 2006.
- 황인규, 「고려 裨補寺社의 設定과 寺莊運營」, 『東國歷史教育』 6, 1998.
- 황인규, 「선각국사 도선과 비보사찰」, 『선각국사 도선』, 영암군 월출산 도갑사 도선국사연구소, 2007. 12.
- 황인규, 「고려전기 사굴산문계 고승과 선종계」, 『한국선학』 17, 2007. 9, pp.93-125.
- 황인규, 「청한설잠의 승려로서의 불교계 활동과 교유인물」, 『한국불교학』 40, 한국불교학회, 2005.

[Abstract]

Military Activity of Great Monk Seosan-daesa and Memorial Project for Him in the Late-Joseon Dynasty

Hwang, In-gyu

This study aims to reestablish the national respect and social status of a great monk, Seosan-daesa, Cheongheodang-Hyujeong who restored dismal status of Buddhism in the mid-Joseon Dynasty. The great monk, Seosan has had a great influence on Korean Buddhism enough to consider that almost all Buddhist monks in Korea are included among his disciples. In an era in which Confucianism was respected and Buddhism was suppressed, the Buddhist orders were dismissed and monks were forced to move into the mountains. Even Cheongheodang-Hyujeong was imprisoned for false accusation of treason, although released.

When the Japanese Invasion threatened Korea's existence and King Seonjo was forced to evacuate Hanyang (the current Seoul) and flee to Euiju in the northern part of Korea, the 73 year old great monk was the commander-in-chief of an army that he raised, with a written appeal to monks, to save the nation. He did this patriotic and noble deed for the country despite the fact that he had been persecuted by the government and as a monk should observe the commandment of ahimsa (no destruction of life).

Nevertheless, tributes to him remain in only three places: Myohyang Mountain where the great monk stayed in the era of King Youngjo and King Jeongjo; Milyang, the birthplace of his representative disciple, Samyoung; and Dacheung Temple in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that became a center of Buddhism in the late-Joseon Dynasty. Other memorial projects for him are scarcely found and even their existence has been forgotten. This study aims to resurrect his will and deeds in our modern community while admiring and honoring him for his patriotic mind.

Key Words: Doseon(道詵), Muhak(無學), Seosan(西山) Pyochoongsa(表忠祠), Sochoongsa(酬忠祠), Buddhism for National Protection(國家裨補思想), Buddhist monks(僧軍), Soowonseongdo(隨院僧徒), Four Great Sages(四聖)

황인규는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동국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이다. 관심 분야는 한국중세사 및 불교문화교육사이다. 주요 연구업적으로는 『무학대사연구: 여말선초 불교계의 혁신과 대응』(1999), 『고려후기·조선초 불교사연구』(2003), 『고려말·조선전기 불교계와 고승연구』(2005) 등이 있다.

[2009. 10. 24. 투고; 2009. 12. 12. 수정; 2009. 12. 15. 채택]